

벤투호, 내일 '천적' 케이로스 만난다



벤투호가 한국 축구의 오랜 천적 카를로스 케이로스(66) 감독이 이끄는 콜롬비아와 격돌한다. 파울루 벤투(50)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남미의 강호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을 갖는다. 22일 울산에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둬 상승세다. 21개 슈팅을 시도하고도 한 골에 그쳐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벤투 감독은 "내용이 좋았다"며 만족함을 드러냈다. 콜롬비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의 강호다. 상대전적에서는 6전 3승2무패로 한국이 오히려 강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1월10

일 수원에서 가진 평가전에서는 손흥민(도르트뎀)의 멀티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축구팬들이 이 경기에 특히 관심을 갖는 건 새롭게 콜롬비아의 지휘봉을 잡은 케이로스 감독 때문이다. 케이로스 감독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까지 이란을 이끌었다. 이란 사령탑으로 있던 8년 동안 한국 축구에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다. 유독 한국에 강했다. 한국은 케이로스 감독 체제의 이란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다섯 번 싸워 1무4패를 기록했다. 골도 기록하지 못했다. 스페인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

‘남미 강호’ 콜롬비아와 A매치 평가전 개최
韓, 케이로스 체제 이란과 5차례 붙어 1무4패
케이로스 감독, 올해 2월 콜롬비아 감독 부임

감독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석코치,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등을 지낸 그는 2011년 4월 압신 고트비 감독의 뒤를 이어 이란 감독을 맡았다. 논란도 있었다. 2013년 6월 울산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한국에 1-0으로 승리한 후, 최강희 당시 감독을 비롯한 한국 코칭스태프를 향해 ‘주먹 감자’를 날렸다. 최근 콜롬비아 언론은 “케이로스 감독은 한국 축구의 적”이라며 이 사건을 조명하기도 했다. 케이로스 감독은 아시안컵 이후인 올해 2월 새롭게 콜롬비아 사령탑에 앉았다. 22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콜롬비아 사령탑으로 데뷔전을 가졌다. 벤투 감독이 케이로스와의 악연을 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교롭게 벤투 감독과 케이로스 감독은 같은 포르투갈 출신이다. 벤투 감독은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 지동원(이우크스부르크)을 최

전방 투톱으로 배치하는 4-1-3-2 전술을 활용, 변화를 실험했다. 리그에서 필립 날고 있는 손흥민은 몇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골맛을 보지 못했다. 벤투 감독 부임 이후 골이 없어 콜롬비아전에서 미수절이 득점에 성공할지 궁금하다. 부상에서 돌아온 권찬호(다중)은 1년 만에 A매치를 소화했다. 88분 동안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활발한 모습을 보여 벤투 감독을 호뭇하게 했다. 처음으로 성인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발렌시아)과 백승호(지로나)가 콜롬비아전에서 데뷔할 수 있을지도 흥미롭다. 이강인은 볼리비아전에서 교체 명단에 들었지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백승호는 명단에서 빠졌다.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1-0으로 이긴 콜롬비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 뮌헨), 라다멜 팔카오(AS 모나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앞세워 예열 중이다.



류현진, 개막전 선발 낙점 박찬호 이어 역대 두 번째

오는 29일 다저스타디움서 애리조나 그레인키와 맞대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박찬호에 이어 한국인 투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 투수의 영예를 안았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28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을 개막전 선발 투수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류현진은 오는 29일 오전 5시10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개막전에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상대 선발은 옛 동료인 잭 그레인키다. 올해 미국 무대에서 7번째 시즌을 맞는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 투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투수가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것은 박찬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7년 만이다. 박찬호는 2001년 LA 다저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개막전 선발 중책을 맡았다. 박찬호는 다저스 시절이던 2001년 처음으로 개막전 선발 등판 중책을 맡았다. 그는 4월 3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고 승리 투수가 됐다.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첫 해인 2002년에도 개막전 선발로 나선 박찬호는 4월 2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9피안타(2홈런) 6실점으로 부진, 패전 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지난해에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 한국인 투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오른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한국인 투수로는 박찬호 이후 17년 만에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 마운드에 서게 된 류현진은 “분명히 특별하다. 미국에 온 이후 첫 개막전 선발”이라며 “개막전 선발 등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선 순위도 아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초 다저스의 확고한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올해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설 전망이다. 커쇼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섰다. 로버츠 감독은 스프링캠프가 시작되는 날 커쇼가 개막전 선발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커쇼는 스프링캠프 초반인 지난해 중순 왼쪽 어깨 염증 진단을 받아 약 3주 동안 투구를 하지 못했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또 다른 개막전 선발 후보였던 워커 볼러는 지난해 많은 이닝을 소화해 관리 차원에서 지난 20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야 첫 시범경기 등판에 나섰다. 이 때부터 류현진은 다저스 개막전 선발 후보로 거론됐다. 리치 힐과 류현진 중 한 명이 개막전 선발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힐이 왼쪽 무릎을 다쳐 2주 결장 진단을 받으면서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 등판의 중책을 맡게 됐다. 2015년 왼쪽 어깨, 2016년 왼쪽 팔꿈치를 연달아 수술하며 암흑기를 보낸 류현진은 2년 동안 단 한 차례 선발 등판에 그쳤다. 하지만 2017년 25경기에 등판해 126%이닝을 던지면서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사타구니 부상 탓에 15경기 선발 등판에 그쳤으나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부상을 극복하고 다저스의 신뢰를 되찾은 류현진은 개막전 선발 투수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SK 염경엽 감독 충고 “김광현답게 던져라”

KT전 60닝 4실점...역대 KT상대 부진 명예회복 실패

SK 와이번스의 염경엽(51) 감독이 에이스 김광현(31)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했다. SK는 지난 23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미야카 KBO리그'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7-4로 승리했다. 염 감독은 SK 사령탑 부임 후 첫 승을 올렸고 선발 김광현에 이어 나온 하재훈이 승리투수가 됐다. 마무리 임태훈은 올해 첫 번째 세이브를 신고했다. 한동민과 제이미 로맥은 “훈련군단의 위용을 자랑하는 홈런포를 터뜨렸다. 그러나 한 명만 웃을 수 없었다. 에이스 김광현이다. 김광현은 전날 KT전에 선발 등판, 60이닝 8피안타 3볼넷 7탈삼진 4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2015~2016년 KT를 상대로 6경기

에 등판해 2승 2패 평균자책점 9.76으로 부진했다. 이날 KT를 상대로 명예회복에 나섰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구는 높았고 무리한 컨트론클을 고집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염 감독은 24일 KT와의 경기를 앞두고 김광현에게 충고를 했다. “어제 김광현은 밸런스 등 가장 안 좋았다. 그래도 에이스답게 잘 버텼다. 제구가 높았지만, 포크볼 등은 괜찮았다”며 “KT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 같다. 맞더라도 김광현답게 던져야 한다”고 정면승부를 요구했다. 이어 “차라리 시범경기 때 넣을 걸 그랬다. 단순하게 생각했다. 시범경기 때 나와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던졌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차준환, 세계선수권 19위



‘점프 괴물’ 쟌, 남자싱글 2연패 하뉴, 준우승...자신 최고점 넘어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18·휘문고)이 자신의 첫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쉬운 성적을 냈다. 차준환은 23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50.09점을 획득, 지난 21일 쇼트프로그램(79.17점)과 합계 총 229.26점을 받아 최종 19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 홀로 출전한 차준환이 19위에 오르면서 한국은 내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출전권

1장만 확보했다. ‘점프 괴물’ 네이션 쟌(미국)은 프리스케이팅에서 216.02점을 획득, 지난 21일 쇼트프로그램(107.40점)과 합계 총 323.42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2연패를 달성한 하뉴는 300.97점을 받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최고점을 넘어섰지만, 쟌에 밀려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미국의 빈센트 저우가 281.16점으로 동메달을 땀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